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4. 7. 18.(목) 11:00, (지면) 2024. 7. 19.(금) 조간 배포 2024. 7. 18.(목) 06:00

섬 지역 어업인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

- 섬 지역 어업인 대상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- 도심으로 이동하지 않고 섬 마을회관에서 질환 치료를 위한 원격진료 가능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 닥터 사업*을 추진하기 위해 7월 19일(금)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, HK이노엔(주)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(사)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 전국 유인도서 100개, 어업인 약 1만 명 대상, '24.8~12월(5개월), 화상 원격진료 지원

‘비대면 섬 닥터 사업’은 도시의 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거주 어업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. 동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은 마을회관에서 원격진료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문진, 진료, 약 처방 및 배송, 진료기록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요시 병원 방문진료 예약도 가능하다.

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사업 총괄(해양수산부), 농어촌상생기금지원(협력재단), 기금 출연 및 봉사(HK이노엔(주)), 컨설팅 및 사업평가(한국해양수산개발원), 사업수행((사)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)를 각각 담당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이번에 민관공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재원을 투입하는 등 민간과 공공 영역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.”라며, “올해 3월부터 어촌·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복버스 시범사업에 이어 이번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내년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	책임자	과 장	정준호 (044-200-5460)
		담당자	사무관	홍길수 (044-200-5461)

참고

비대면 섬 닥터 개념도 및 서비스 제공 절차도

□ 비대면 섬 닥터 개념도



□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도

